

01 교회소식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를 통해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졌다.

02 생명의 말씀

부활의 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됐다.

03 간증

“치료와 축복,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이재록 목사 저서를 통해 치료와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60여 년간 술에 찌든 삶에서 해방되는 등 국내 성도들의 간증.

04 권능의 역사

암세포가 사라지고, 실명된 눈 회복돼

손수건 기도로 림프암 3기로 죽어가던 아들이 회생하고 실명된 눈이 정상이 돼 부활의 소망을 얻은 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680호 2015년 4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헌신의 의미’ 되새긴 2015년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



당회장 이재록 목사(사진 1)는 영감어린 예화들을 통해 참된 헌신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으며, 헌신자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뜨겁게 충성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2, 3은 헌신자 대표 및 전체 특송).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작사의 ‘영문 밖의 길’을 찬양

하는 이재록 목사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선진들은 이런 길을 갔습
니다. 주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사도들, 선지
자들도 그렇고요. 주기철 목사님뿐 아니라
순교자들도 이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믿음
이지요. 하나님, 주님 사랑을 알고 천국을 믿
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왜요? 고통은 잠시 잠깐 후에 면하는 것이
요, 그 다음은 천국이니깐요.”

지난 3월 29일 주일 저녁예배는 ‘2015 주의
종·직원 헌신예배’로 드렸다. 대상자는 주의
종과 레위(교회 직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에스터회(주의 종의 사모들로 구성된 기관),
기도제물연합회(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
로 헌신하는 기관)이다.

강사로 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헌신의
의미(계 2:10)라는 설교로 헌신자는 물론 성
도들에게 큰 깨우침과 감동을 주었다.

이 목사는 “헌신이란 육적인 책임감 속에
무거운 짐을 지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내 유익을 따라 수시로 변개
하는 마음이 있는지, 둘째 헌신한다 하면서
내 조건과 상황에만 맞추려 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헌신예배는 2013년 3월 31일, 주의
종과 레위족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시점
과 때를 같이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목
자의 희생과 사랑으로 맞은 이 기회의 시간
을 통해 주의 종과 레위족뿐 아니라 성도들
은 신앙의 부활로 나와 힘찬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헌신자들은 크신 은혜와 사
랑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
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본문 말씀
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다.

2015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성찬식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서는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흠
도 점도 없으시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셨고 지금도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주를 믿
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
하셨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활은 이미 죽
은 사람이라 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체로 변화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어
떤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부활
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4월 5일 주일, 감사

예배 및 성찬식을 가진다. GCN 방송을 통
해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당회장 이
재록 목사는 대예배 시 ‘부활의 의미(요 14:6)
를 전하고, 저녁예배 시에는 ‘믿는 자의 복’
(요 6:53~55)이라는 설교 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는 성찬식을 가진다.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
정성스레 장식한 계란을 준비해 전 성도에게
전한다. 한편, 4월 2~4일에는 교회 인근 관
공서와 벤처타운 등 이웃들에게 계란을 나
눠주며 주님의 부활과 사랑을 전했다.

부활절을 통해 우리를 참 자녀로 이끄시
고자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사랑, 진리 가운

데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더욱
온전히 이루기 바란다(살전 5:16~18).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장차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해준다. 부활절은 주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이
웃에게 전하는 기쁜 날이다(사진은 2014년 부활절 성찬예식과 계란으로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



당회장 이재록 목사

부활의 주

했을 때도 바로 이 법에 의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도 결국 영계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한 대로 예수님께서 사망권을 깨뜨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입한 영적 축복

1)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요.

로마서 5장 18~19절에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곧 아무 죄도 없으면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몸과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해 주십니다(롬 10:10).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3~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단순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차원을 넘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므로 주님과 하나 되어 할 것입니다.

2) 육의 세계와 다른 영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

들에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며 사람의 사고를 뛰어넘는 무한한 영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어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간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막 9:23).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사람을 통해 기사와 표적도 베푸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지요. 또한 사도행전에 스테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면 오늘날도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음과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3) 부활과 천국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4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지요. 이 세상과 달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는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더 굳건히 갖도록 여러 차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열두 제자, 오백여 형제에게 보이셨으며(고전 15:5~6) 한번은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과 떡을 함께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부활체의 몸에 대해 알려 줌으로 부활의 소망을 더 확실히 갖게 해주기 위함이었지요.

부활체의 몸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배설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분해돼 호흡을 통해 배출됩니다. 천국에서는 먹지 않아도 살지만, 만일 생명수와 과일을 먹거나 흠향하면 더욱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두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에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안개와 같이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무가치한 인생일 뿐입니다(약 4:14). 그러나 부활의 주님으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으니 이후 천국에서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잠시 후면 썩고 쇠해 버릴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부활의 주님으로 산 소망을 갖게 하사 영원한 기업을 위해 살게 해 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 새싹이 나고 자라나 꽃을 피우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구원과 영생,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3~4)

부활절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입한 영적 축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든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지요. 이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나 마음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배척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이제는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했다며 좋아했지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감추어 두신 비밀한 섭리 가운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만 것입니다(고전 2:7~8).

영의 세계에는 죄의 값은 사망, 곧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롬 6:23).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 11:00 PM |
| 금요일예배 | 11:00 PM |
| 수요일예배 | 7:00 PM |
|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 8:00 PM |
|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 9:00 PM |
|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일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 월요일 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4면에 이어



▲ 아내 허초롱 집사, 작은 아들 한결, 큰아들 기쁨이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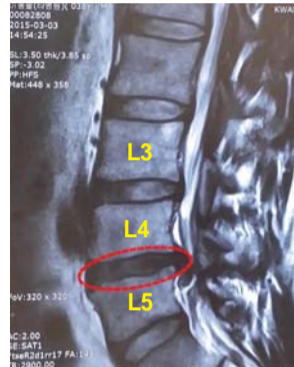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았습니다”

이동필 집사 (40세, 광주만민교회)

지난 3월 3일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에서 박스 두 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스를 다른 위치로 옮겨놓고 일어서는데 허리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GCN 방송 홈페이지(www.gcntv.org)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후 집 근처에 있는 신경외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진찰 결과 MRI를 촬영해보야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수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요. 저는 더욱 심해진 통증으로 인해 구급차에 실려 척추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RI 촬영 결과, “허리 척추 4, 5번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고 이 디스크를 보호하고 있는 막까지 터져 디스크가 아래로 흘러내린 상태에서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지요.



▲ 요추 4~5번 사이 추간판이 탈출돼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 이제는 허리를 자유롭게 굽히고 펼 수 있게 됐다.

사실 저는 10년 전 다발성위궤양을 권능의 무안단 물과 당회장님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았고, 9년 전 기형아 출산 위기에 있던 큰아들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정상아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지 못한 것을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했지요.

마침 3월 7일, 이희선 목사님을 강사로 권능의 손수건 집회가 마련돼 있기에 저는 믿음으로 치료받자 준비했습니다. 수술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강

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지요. 그러자 신기하게 아무리 허리를 돌려봐도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딸 나연, 남편 정연길 권찰과 함께

“하나님 뜻을 밝히 알려 주는 성결의 복음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선영 집사 (44세, 김해만민교회)

2011년 5월,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이 참 행복했습니다. 매일 하는 성경공부도 흥미로웠고, 십일조 헌금, 구제 등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했으며, TV를 보지 않고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영적으로 갈급해졌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 말, 인터넷을 통해 ‘영의 사람’에 관한 신앙서적을 찾던 중 만민중앙교회의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많은 저서를 발견했습니다. 책자의 제목들과 목차만 읽어가는데도 가슴이 쿵광거렸지요. ‘어떻게 해야 이 책들을 빨리 읽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전자책들을 구입해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밤늦도록 읽으면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감동이 넘치는 내용으로 가득했지요. 더구나 제가 사는 김해에도 만민중앙교회의 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11월 4일부터 김해만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제 마음의 비진리를 밝히 조명해 주었고,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제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혈기가 나올 때마다 한 끼 또는 하루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장 강해 설교를 통해 영적인 사랑을 하고자 노력했지요.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영계의 법칙을 깨우친 후에는 예배, 기도, 봉사, 물질로 심으며 주님의 마음을 닦고자 힘썼더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남편 사업터의 물질 축복은 물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평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밝히 알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아내 김병기 권사와 함께

“60여 년 술로 찌든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홍일남 집사 (85세, 3대대 25교구)

저는 술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술버릇으로 동네에서 유명했고, 아내는 저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1997년, 딸 홍진숙 전도사의 전도로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대예배만 드리고 술친구들을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은 여전했지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마음대로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2010년 어느 주일, 평소와 달리 저녁예배까지 드리고 싶어져 예배를 드리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갑자기 술이 싫어지더니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지요. 60여 년 동안 술로 찌든 삶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 제 위주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내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지요. 매일 성경을 읽고 당회장님의 신앙서적을 읽으며 기도하는 삶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노년에 저희 부부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4월5일~4월11일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선 ■ 지옥 1-3
- 2차 영혼육 1-5 ■ 축복 3
- 창세기 강해 33-37 ■ 예언 3
- 일곱교회 5-9 ■ 하나님의 뜻
- 성령의 9가지 열매 5-9 ■ 부활
- 요한일서 강해 34-38
- 요한계시록 강해 38-47

GCN TV설교

- 멈추지 마시다 2 (이수진 목사)
- 선을 닦아가는 방법 (이미영 목사)
- 같은 상황, 다른 마음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32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4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3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6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일곱달콩 여여쁜 울동 34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7
- English 13 ■ 즐거운 요리 7
- 옛날 옛적에 6 ■ 내 마음의 천양 8
- 흥겨운 소리 6 ■ 창조와 과학 7
- 모두 드려요 26 ■ 뷰티플라이프 9

해외성회 및 교육

- 만민 하계수련회 교육 1-2
-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1
- 회상 3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할 것이다. 믿고 순종할 때 응답하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부활의 소망이 더해지길 바란다.



▲ 엄마와 함께한 마가렛 오디도 자매 (15세, 케냐)

“실명된 눈이 이제는 잘 보여요!”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400km 떨어진 시야아라는 마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난 2월 23일 오전,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받던 중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오쯤 돼서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지요.

매우 당황스러웠고, 친구들도 깜짝 놀라 급하게 선생님에게 데려갔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음날에도 상황은 여전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엄마는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 매우 놀라며 막막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갖고 계셨기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몇몇 분들은 주술을 권했지만 엄마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지요.

저는 엄마와 함께 집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실명된 눈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결과만 얻었지요.

3월 후, 친척 중 한 분이 제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시무하시는 보아스 전도사님의 어머니셨지요. 평소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나타나는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통한 권능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던 터라 저희는 손수건 기도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나이로비만민교회 정명호 담임목사님과 통화할 수 있었지요. 정 목사님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들을 먼저 회개하라고 하시며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시공을 초월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받은 후 성경을 보는데, 제 시야가 점점 밝아지더니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실명된 제 눈을 즉시 치료해 주시고 밝은 빛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림프암 3기였던 아들의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시타 수날 성도 (30세, 네팔)



▲ 림프암을 치료받은 큰아들 수랄즈(오른쪽)와 딸 경가, 작은 아들 싸갈과 함께

2013년 11월, 큰아들 수랄즈 수날(13세)이 자주 기침을 하며 고열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단순히 감기에 걸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는 점차 살이 빠지고 오른쪽 가슴이 붓는 등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칸티어린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림프암 3기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결과가 나왔지요.

혈소판 수가 6만 개(정상수치 15~40만)에 불과했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7.1 정도(정상수치 12~16)밖에 안 됐습니다. 곧바로 입원한 아들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위중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6개월이 되어도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 심령은 가난해져 평소 형님이 전도한 네팔만민선교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족 모두 2014년 5월에 등록은 했지만 몇 번 나가다 말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는 여전했지요. 그러자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되고 아들은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죽을 것만 같았지요. 이런 와중에 아들이 이해찬 담임목사님을 간절히 찾았고, 6월에 심방을 받게 됐습니다.

담임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들에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점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실 아들은 2012년부터 큰엄마를 따라 가끔 교회에 다녔지만 성전 밖에서 뛰노느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지요. 담임목사님은 제게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이라고 하시면서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며 무안단물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21일 동안 아들의 치료를 위해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 금식을 하며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아들은 기도를 받은 후부터 호전돼 열도 내리고 전에는 3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혈을 받지 않아도 혈소판 수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었지요.

또한 8월에는 검진 결과 암세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질병을 통해 저희 가정의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거드랑이 조직검사에서 림프암 3기를 진단받음.



▲ 골수검사에서 비전형적인 암세포가 보이지 않음.

(이어서 3면)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매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성북구 광덕산로 22, 연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